



혁명가 12인의 법정 최후진술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

— 서점주인 沈範燮씨

지금 독자들 역사는 그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새로운 것을 가능한 것이 되도록, 또 보편적인 것이 되게끔 노력한 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들은 언제나 미래의 공기를 호흡하기 때문에 선각자였고, 그들은 늘 소수였다. 그중엔 발명가도 있고 학자, 예술가, 탐험가도 있다. 또하나 꼽는다면 바로 혁명가.

블랑끼, 마르크스, 바쿠닌, 프로보뜨킨, 스파이스, 올라노프,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디미트로프, 카스트로, 루즈베흐, 드브레. 자신이 확신하는 이념에 따라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려던 12명의 혁명가들을 심범섭씨(47·성동구 서서점 대표)는 책으로 만나고 있다. 카스트로가 한 말로 유명한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엔젠스버거 엮음, 허진 옮김, 공동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들 12명이 당대에 법정에서 행한 최후진술을 모은 것. 혁명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 정치권력에 대해 날카로운 공격을 가한다. 곳곳에 기지에 넘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민중이 고작 자신이 만져보기도 힘든 동전에 새겨질 인물을 바꾸기 위해 투쟁했겠는가”라는 블랑끼의 말은 그의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일은 행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바로 이것이 나의 삶이다’라는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강한 어조로 자신의 소감을 말하는 심범섭씨는 20여년간 사회과학전문서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8년전 지금의 자리인 건국대학교 앞에 서점을 열 때만해도 근처에서 유일한 사회과학전문서점으로 학생들의 아낌을 받았다. 덩수룩한 수염과 은은한 웃음이 선량해보는 그를 모르는 건대생은 아마도 없을 듯하다. 책을 고른 뒤 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받기도 하고, 학생들의 잔심부름을 싫은 소리없이 받아주는 학생들의 좋은 친구가 된지 오래다. 젊은 학생들을 대하다보니 그가 자신 학생들 못지않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그 자신을 위해 봉사한다고 보면 그 지식인은 지식을 가진 무서운 동물에 불과합니다. 지식인은 인간을 위해 지식을 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한 개인이 가지는 사상만큼은 ‘전적으로 자유’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써 손가락질당하거나 단죄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 책에서 그가 받은 감명도 혁명가들의 사상과 실천의 치열함이다. 그들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이지 정치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는 동감한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함께 풀고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겉보기에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서점이지만, 심범섭씨만큼 너그럽고 여유있는 웃음을 가진 부인과 나란히 일하는 모습 속에 행복이 가득 차 보인다.

— 홍현숙 기자



한 여인의 험난한 사랑의 과정 金潤姬의 「잃어버린 너」

— 피아노학원 원장 洪京月씨

지금 독자들 동대문에 있는 예림 미술 피아노학원을 찾았더니 어린이들이 먼저 반겼다. 유치원을 겸하고 있어선지 원장 洪京月씨(29)는 늘 동심으로 돌아가곤 한다. 그는 요즘 ‘순수한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金潤姬의 장편체험소설 「잃어버린 너」(다나)를 읽고 난 후.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 다시말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했던 사람도 그리 많지 않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볼 때 커다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소설이 바로 그런 사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요.”

「잃어버린 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불구가 된 후에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한 여인의 삶이 나타나 있다. 바로 저자인 김윤희씨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그녀가 앞으로 끝끝내 사랑하게 될 임종식을 만나면서 이 소설은 시작된다. 그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그가 공부를 더 하겠다며 미국으로 건너간 얼마 후부터 그들의 운명은 멀고 먼 고난의 길로 접어든다.

미국으로부터 날아온 그의 사망소식은 스물을 갓넘은 그녀의 가슴에 회오리바람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힌다. 대학을 다녀도 보람을 찾을 수 없었고, 친구를 만나도 기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서울의 산동네 어느 허름한 집에서 그가 살고 있다는 소식이 그녀에게 전해집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불구가 되자 사망이라고 알렸었던 거지요. 그 산동네에서 불구인 한 남자와 그를 사랑하는 한 여인의

험난한 사랑의 과정이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

그것이 그저 연민일 뿐이었다면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을 거라며, 바로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홍경월씨는 말한다. 한순간의 동정으로 돌봐주다 만 것이 아니라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랑을 끝없는 인내력으로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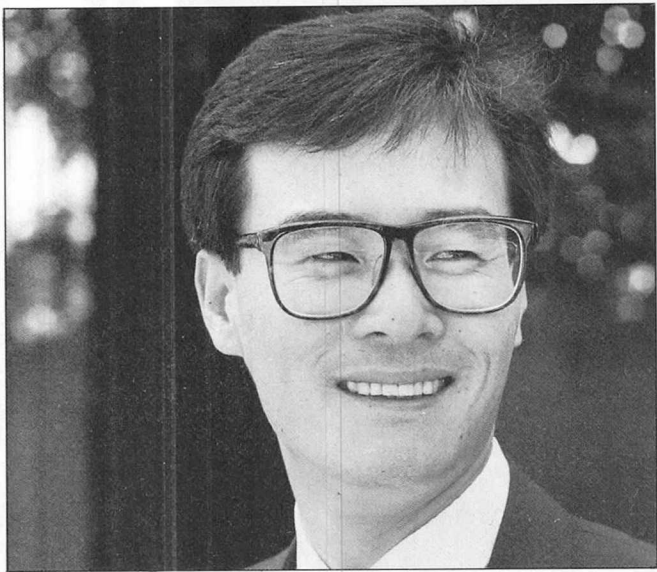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푼 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시대의 메마른 풍토를 생각할 때 이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직 미혼인 홍경월씨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다 보니 결혼이 늦어지고 있단다. 결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그것을 찾는 자체가 사실은 이기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신앙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야겠다고 말한다.

“제가 주로 읽는 책도 대부분 신앙서적이지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배우는 사랑의 실천,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은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그런 신앙적인 감동을 안겨주더군요.”

그래선지, 산업디자인학과 출신인 그의 솜씨로 무척 조화롭게 꾸며놓은 실내에 ‘사랑’도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 느껴졌다.

— 차창용 기자



심리학자가 알려주는 사랑하는 방법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 광고인 金台坤씨

지금 독서중

“재작년,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에리히 프롬의 「소유나 존재냐」를 한번 사주시더군요. 아마

제가 사는 모습이 무척 삭막해보였나 보지요. 목사님께서 굳이 읽어보라고 사주시는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공부하듯 다소 기를 쓰고 읽어내려갔습니다. 프롬의 책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의외로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심리과학자이면서도 사랑의 본질을 유난스럽지 않게 담담한 어조로 풀어내려간 프롬의 자세가 특히 마음에 들었다고 金台坤씨(33·시사기획 이사)는 말한다.

그래서 내쳐 읽게 된 것이 역시 프롬의 대표작 중 하나인 「사랑의 기술」(황문수 옮김, 문예출판사, 89)이다.

사랑은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런 즐거운 감정인가, 아니면 지식과 노력이 요구되는 기술인가? 사랑받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문제인가? 너무나 많이 남용되었기에 이제는 식상해버린 ‘사랑’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프롬의 목소리는, 이책이 처음 나왔던 3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않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사랑은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며 삶이 기술이듯 사랑 역시 기술이라는 프롬의 주장은, 그가 권두에 인용하고 있는 16세기의 스위스 의화학자 파라켈수스의 말로도 요약될 수 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 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으면 그럴수록 사랑은 더욱더 위대하다.”

그렇다면 과연 올바른 사랑의 기술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프롬의 대답은 대단히 평범하다. 즉 어떤 기술분야에서 名匠이 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듯, 사랑에서도 부단한 훈련·정신집중·인내 그리고 자아도취를 벗어난 겸손하면서도 이성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기술과 활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처방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프롬의 대답이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수식어를 제거한 뒤 남는 진리는 역시 단순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김태곤씨 역시 프롬의 그러한 자세에서 순수함을 느꼈다면서, 이 책을 통해 사랑의 본질 뿐 아니라 요즘의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전자공학도였던 김태곤씨가 “안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손대보다가”, 약5년전 ‘이것이다’ 싶어 뛰어난 분야가 바로 광고업계다. 지난 87년부터 광고대행사 시사기획을 세워 운영해오고 있으며, 요즘은 최근 국내에서도 점차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이벤트산업 정보지 창간준비를 하느라 더욱 분주하다.

「사랑의 기술」을 더디게 읽는 한편으로 ‘남들과의 대화에 동참하기 위해’ 시중의 화제작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를 후딱 읽어치웠는데, 이 책의 야한 여자論에 대한 그 자신의 견해를 묻자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한다.

— 오애리 기자



상담사례 통해 자녀교육 방향 제시 李有我的 「나의 자녀 무엇을 먼저…」

— 주부 邊明熙씨

지금 독서중

한창 자랄 나이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은 할일이 많다. 단순한

‘뒤치다꺼리’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명희씨(38·서초동)도 국민학교에 다니는 두 사내아이의 어머니로서 가정교육에 관한 문제가 일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따라다닌다고 했다.

“얼마전 4학년짜리 둘째가 엄마도 제왕절개수술을 해서 자기를 낳았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럴 때를 위한 준비자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했죠. 사실 내가 자랄 땐 성교육이란 게 없었으니 막상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변명희씨가 선택한 방법이 책읽기란다. 주로 자녀교육에 관한 책이 대부분인데, 변명희씨는 요즘 새롭게 도움을 주는 책으로 「나의 자녀 무엇을 먼저 가르칠 것인가」(李有我 지음, 한국교육연구원)를 펼쳤다.

“이제까지 자녀교육에 관한 책은 너무 전문적이거나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번역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책은 저자가 직접 상담활동을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줘요. 예를 들면 국어를 싫어하는 어린이, 과학을 싫어하는 어린이 등 세부적인 지도요령까지 담겨 있거든요.”

어머니교실 강좌를 통해 소개받았다는 이 책은 어머니들이 한번쯤 고민했을 어린이 행동에 대한 상담내용을 주제별로 분류,

분석함으로써 자녀교육의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어머니가 직접 쓴 체험기도 있는데 꼭 공감이 가더군요. 국민학교 때 엄마의 열성적인 교육열로 학교회장까지 지내다가 중학교에 가서는 학교생활을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가출한 한 아이엄마의 고백은 요즘 지나치게 ‘치맛바람’을 몰아대는 ‘아파트엄마’들에겐 특히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지요.”

변명희씨 자신도 학교(서이국민학교, 서초동)에서 어머니회장을 맡고 있지만 어머니들이 지나치게 학교일을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요즘엔 미술학원이나 컴퓨터학원 등 ‘학원보내기’가 ‘아파트엄마’들 사이에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는데, 일단 학원에 보내야 안심을 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짐도 문제란다.

‘서머힐’ 같은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교육은 어렵더라도 어린이의 인격은 최소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변명희씨의 생각인데, 그래서 일요일이면 가족 모두 시내 큰 책방에 나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고르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사은 책은 빙 둘러앉아 함께 읽죠. 그러곤 각자의 느낌을 말해요. 서로의 다른 생각을 들으면서 유연한 사고력을 갖게 될 테니 책읽기에는 좋은 방법인 셈이죠. 공부나 독서가 즐거운 놀이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엄마들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해요.”

학교의 어머니회장으로 여러 잡무를 처리하면서, 개구장이 사내들의 뒤치다꺼리뿐만 아니라 좀더 현명하게 가정교육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로 변명희씨의 하루하루는 늘 꽉 채워진 듯하다.

— 김지원 기자